



《Lumpy, clay, 2018》

JUNG JISOOK

2014 MFA Ceramics, Kookmin University, Korea
2012 BFA Ceramics, Kookmin University, Korea

3 times Solo Exhibition, Seoul / Korea
2017 Got grand prize in Design Art Fair
2016 SOFA, Chicago / USA
2015 Maison & Object, Paris / France
2014 Got Artist of the Year in Craft Trend Fair

鄭知淑

2014 国民大学校陶芸科 卒業, 韓国
2012 国民大学校院陶芸科 修士課程 卒業, 韓国

個展3回, ソウル / 韓国
2017 デザインアートフェア公募展 大賞
2016 SOFA, シカゴ / アメリカ
2015 Maison & Object, パリ / フランス
2014 工芸デザイントレンドフェア 今年の作家賞 受賞



《Mass of Thought, clay, 2016》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s.es>

鄭知淑展 / 精神の塊

主催: 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 駐日韓国文化院・Azabujūban Gallery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KCD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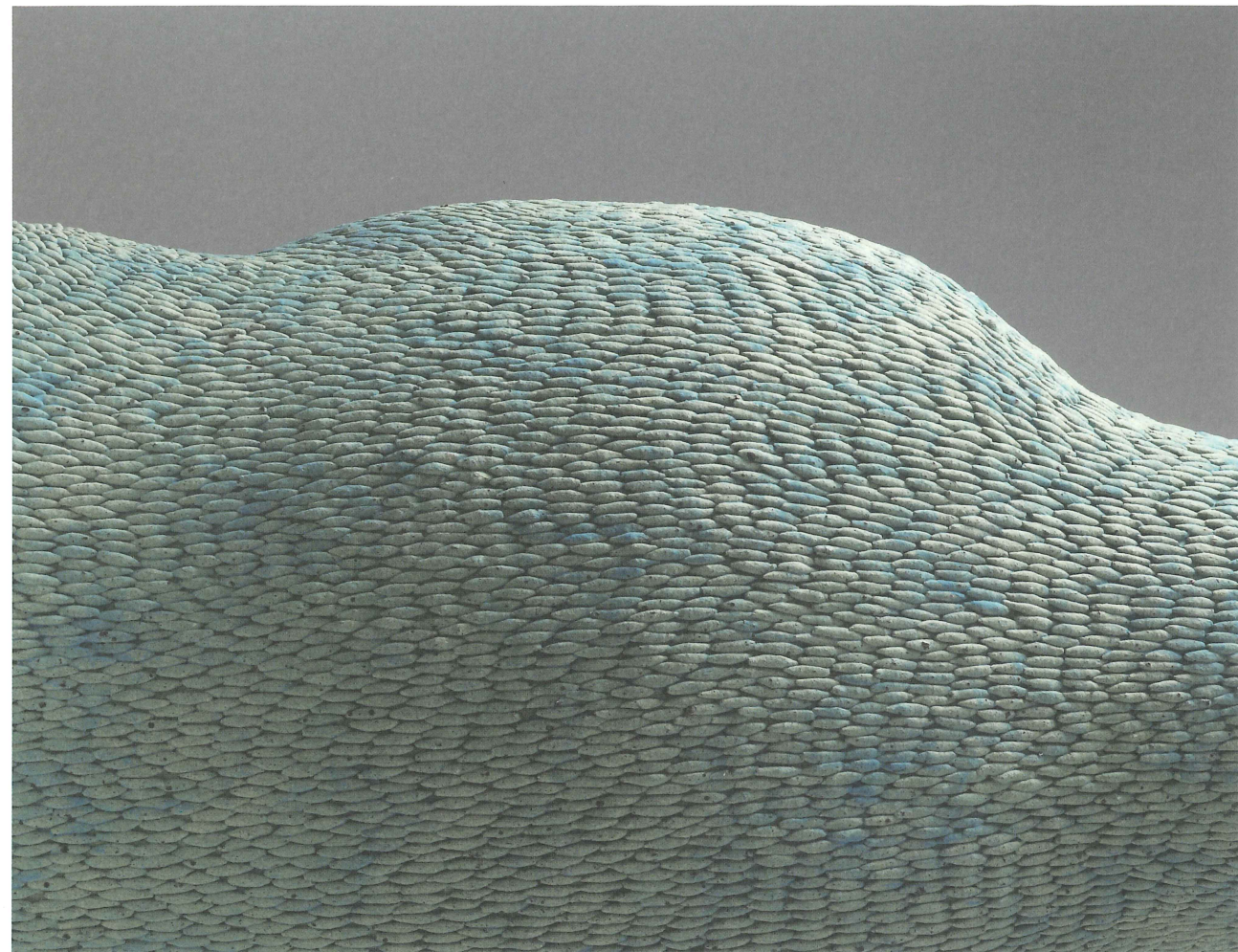
駐日韓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Azabujūban Gallery

鄭知淑 展 / Jung Jisook Solo Exhibition

精神の塊

Mass of Spirit



《Moment, clay, 24x29x53cm, 2018》

Marunuma Art Park
2019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2

2019年 8月 22日 (木)・23日 (金)

ものがたりの容器

今回で9回を迎える丸沼芸術の森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に招聘された鄭知淑(ジョン・ジスク)には忘れられない幼い日の体験が2つあるという。ひとつめは彼女が10歳まで過ごした自然豊かな土地とそこでの幸福な時間に包まれた生活から引っ越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ときのこと。夢の中で体が勝手に通っていた小学校へ向かい歩き出し、校門の前に立っていた。ふと夢から覚めるとそれは現実であった。ふたつめは中学2年生の頃、宇宙の起源であるビッグバンの解説映像を見た時、突然自身の存在の小ささを感じて大泣きしてしまったことである。大人になった今となってみれば環境や、感情の変化による不安な精神状態がもたらした一過性の出来事だったと済ませることもできるのだが、その不思議な体験が彼女の制作態度にも大きく影響しているという。

韓国国民大学校芸術学科で陶芸を専攻し作家としてのスタートを切ることになった鄭は過去に3度の個展を行ってきた。展覧会名はいずれも「心心」(しんしん)といい、作品自体が作家の分身でありながら客体である鑑賞者でもあってほしいという心の交歓を表わしている。個々の作品タイトルにも「びしょびしょ」や「考えのかたまり」といったものであり、直感的に分かり得るニュアンスのものをつけている。

一見すると、明るく彩色されたその作品群は日常的に我々の近くにいる妖精のようであり、やさしい友人のようでもあるのだが、その空虚な表情からは感情が読み取れず、作品たちと過ごす時間の中でなぜか違和感を覚えるようになる。焼き物であるせいだろうか、中身が空洞だからであろうか、その表層にあらわれたテクスチャーは我々の感情をその内部へと引き寄せる。時空を超えて鄭の記憶世界へと絡め取られてゆくような感覚に支配されるのだ。

幼き日の身体性への不確かさを感じた2つの体験は、器という容れものを作ることによって観客それぞれの物語を受け入れる装置となり、その中身を満たしてゆくのであろう。

大橋博 (丸沼芸術の森アーティスト/ 東京造形大学教授)

《 Universe of Thought, Mixed media, 22x20x42cm, 2018 》



이야기가 담긴 용기(容器)

이번에 9번째를 맞이하는 마루누마 국제 아티스트 인 레지덴스에 참가한 정지숙 에게는 잊지 못할 어린 날의 체험이 두가지 있다고 한다. 그 첫번째는 그녀가 10살정도까지 살았던 시골의 풍요로운 자연과 그곳에서 보낸 행복한 생활을 떠나 이사를 해야만 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 이었다. 꿈 속에서 그녀의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다니던 초등학교로 향해 걸었고 어느새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이었다. 두번째는 중학교 2학년경 우주의 기원인 빅뱅설의 소개 영상을 본 순간 갑자기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작다고 느껴져 그 자리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성인이 된 지금 생각 해 보면 환경이나 감정의 변화에 따라 불안한 정신상태가 불러온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넘겨 버릴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상한 체험들은 지금도 그녀의 제작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도예를 전공 후 작가활동을 시작한 정지숙은 지금까지 3번의 개인전을 개최 하였다. 전시 명 은 모두 [心心] 이라고 하였는데 작품 자체가 작가의 분신 이면서 객체인 관람자 이기도 했으면 하는 작품을 통한 마음과 마음의 교환을 말하려 하고 있다. 각각의 작품 타이틀에도 [주룩], [생각의 덩어리] 등의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뉘앙스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언뜻 보면 밝게 채색 된 작품들은 일상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요정처럼 보이기도하고 친절한 친구와도 같은 느낌도 들지만 작품의 공허한 표정으로 부터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어 작품들 속에서 무엇인가 위화감도 느끼게 된다.

작품 내부가 비어있는 도자기 작업이기 때문인지 작품의 표층에 나타난 텍스처 들은 우리들의 감정을 작품 내부의 공간에 까지 끌어들인다. 그리고 시공을 넘어서 정지숙의 기억세계와 연결 되어가는 것 과같은 감각의 지배를 받게 된다.

어린시절 신체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 작가의 두번의 체험은 그릇이라고하는 용기를 만드는 것에 의해 관객들의 이야기들을 담는 장치가 되어 그 속을 채워가게 될 것이다.

오하시 히로시 (마루누마 예술의 숲 작가/ 동경 조형예술대학교 교수)

《 Motionless, clay, 38x34x53cm, 2017 》

